



김주환(연세대)

1. 서론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야웨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 야웨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1-35장이다. 두 번째 부분은 36-48장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기록한다.¹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1 에스겔서의 내용을 멸망-회복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1-35장과 36-48장의 내용은 묘사하는 상황, 야웨의 선언 등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성전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조이스(Paul M. Joyce)는 36장으로부터 야웨의 회복의 행위가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Paul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41; Sheffield: JSOT Press, 1989).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서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된다고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김래용,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 『구약논단』 24권 3호 (2018년 9월), 232-65. 렌츠(Thomas Renz)는 에스겔서를 미래 지향적 특성을 가지

1-35장은 에스겔 자신이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 본 예루살렘 거주민의 우상숭배 등(8-11장)에 근거한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야웨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시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야웨는 포로가 된 자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11:15-16).²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기초가 이어지는 1-35장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36-48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채워져 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는 구약성서의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야웨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각각의 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록을 보여준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상, 이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1-35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인 유다인들에게 예언을 선언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³ 물론 에스겔서

는 책으로 인식하고 특히 에스겔서의 세 번째 부분인 33-48장이 미래의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는 렌츠의 설명에서 에스겔서의 첫 부분으로 분류되는 1-33장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다. Thomas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 Boston, Mass.: Brill, 1999), 130.

2 학자들은 유다의 멸망에 앞서 이미 포로민과 남은 자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존재했으며, 구약성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K. L. Knol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소형근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9), 395. 원제는 K. L. Knol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3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면,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에게 예언을 선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스겔 자신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빌론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언의 대상인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에스겔은 포로의 신분이었기에 물리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유다인들의 죄악상을 ‘환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장 1절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기록될 뿐 아니라, 8장에서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8:3). 또한 11장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및 야웨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자신을 데리고 사로 잡힌 자 중에 이르렀다고 기록한다(11:24). 즉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본 구체적인 우상숭배 장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본 것이 아니라, 모두 환상 중에 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내에서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 예언하는 장면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을 선언하는 36-48장에서는 에스겔이 야웨의 명령에 따라 대언(대언, 나바)했다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특히 37장).

사실 예언자의 모든 예언이 예언서에 기록된 그대로 충실하게 청중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예언서는 예언을 수집하고 기록한 저자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예언을 배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예언자의 예언과 활동이 예언서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언을 하거나 논쟁까지 벌인 것으로 기록하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같은 여타의 예언서를 생각해보면, 에스겔서에서 예언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야웨의 말씀을 직접 선언했다거나 말했다는 기록이 드물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에스겔서의 특징을 넘어서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장치일 가능성이 높다.⁴ 특히 심판과 회복이라는 전반적 분위기의 전환에 따라 예언의 전달여부까지 달라지는 특징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고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활동에 있어 특정 시기까지 예언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극히 드물게 기록된 이유, 또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본고는 에스겔이 구약성서의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 예언을 선언하는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에스겔서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 파멸 후 회복될 예루살렘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인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는 에스겔이 에스겔서 내에서 야웨의 말씀을 당시 청중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보다는 저자

4 클라우스 코흐, 「예언자들2: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138. 원제는 Klaus Koch, *The Prophe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의 신학적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⁵ 본고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장면(3:26)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장면(33:22)에 주목한다.⁶ 더 나아가서 본고는 에스겔의 입이 닫히고 열리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논증한다.

2. 에스겔의 소명과 닫힌 입에 관한 묘사

에스겔서 2장 1-7절에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의 소명은 1장에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인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1:28)”으로부터 들려온 말로 시작하며, “네 발로 일어서라 내게 내게 말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2:1). 2절에서는 야웨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으며, 야웨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3절). 야웨가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은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4절)” 하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웨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된다(7절). 야웨가 에스겔

5 블렌킨쑤(Joseph Blenkinsopp)은 에스겔서가 에스겔 자신의 것과 에스겔 학파의 것이 혼합된 형태이며, 책 자체에서 둘 모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고는 각 자료의 편집 층에 대한 논문이 아니므로, 예언서의 최종형태가 예언자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일반론적 내용만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조셉 블렌킨쑤, 『이스라엘 예언사』 (황승일 옮김), (서울: 은성, 1992), 290-291.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6 에스겔서 3장 26절에는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며, 그 이유는 야웨가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33장 22절에서는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내 입이 열리기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장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된 에스겔이 야웨의 능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말 못하는 자’와 ‘열린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 예언의 발화가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미와 편의 상 ‘닫힌 입’과 ‘열린 입’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에게 준 말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2:10), 이 말들은 야웨가 에스겔에게 직접 알려주기보다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며(2:9), 에스겔은 그것을 먹은 것으로 기록된다(2:8; 3:1-3).

야웨가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 야웨를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을 선언하도록 했다는 것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여타의 예언자들의 소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에스겔서는 바빌론의 침공이라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야웨를 배반하고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에스겔과 야웨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대해 기록한다. 특히 에스겔과 야웨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은 유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⁷ 따라서 2장 3절에서 야웨가 에스겔을 보낸 “나를 배반하는 자”로 기록된 대상은 에스겔 당시의 유다로 볼 수 있다. 야웨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 35장까지 이어진다.⁸ 36장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준 인근 국가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36:7),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36:8 이하). 에스겔서에 기록된 야웨를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인근국가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 역시 여타의 예언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청중에게

7 에스겔서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혼용하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전제로 하는 시대 상황에 근거하면 정치적 실체로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를 이스라엘로 지칭하거나,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한 소망을 담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상」 (김경렬 옮김), (WBC 28; 서울: 솔로몬, 2009), 116. 원제는 Leslie C. Allen, *Ezekiel 1-19* (WBC 28; Waco, Tex.: Word Books, 1994).

8 크라우치(Carly L. Crouch)의 주장대로, 에스겔서 25장부터 시작되는 유다 인근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왕으로서의 야웨의 승리에 대한 상징적 내용이라면, 이 역시 유다에게는 희망과 관련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Carly L. Crouch, “Ezekiel’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n Light of a Royal Ideology of Warfar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0 (3, 2011), 473-92.

야웨의 말씀을 선언한 예언자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예언자로서 에스겔의 활동 여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형적 위치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명시하고 있듯이, 에스겔이 야웨의 영광을 보고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장소는 “그밭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이다. 이는 1차 포로 발생 당시 에스겔이 포로에 포함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 특히 1-35장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은 대부분 바빌론에 포로의 신분으로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여전히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웨의 명령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2:8-3:3)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לְכָתֹב לְבַיִת יִשְׂרָאֵל, 레코보 엘 베이트 이스라엘)” 야웨의 말을 고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에스겔서 3장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텔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밭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다. 즉 포로민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다.⁹ 또한 3장 15절에서 에스겔은 포로민에게 나아간 후 말씀을 선언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서 7일을 지냈다고 기록한다.¹⁰ 더 중요한 것은 4장부터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은 내용상 그 대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¹¹ 에스겔은 예언자로

9 Hayyim Angel, “Ezekiel: Priest-Prophet”, *Jewish Bible Quarterly* 39 (2011), 38-39.

10 오델(Margaret S. Odell)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2:8-3:3) 속에서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선언해야 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심판 그 자체에 대한 애가와 애곡, 재앙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Margaret S Odell, “You Are What You Eat: Ezekiel and the Scrol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 (2, 1998), 244.

11 따라서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거주민의 죄악에 관한 환상은 에스겔의 활동 당시 예루살렘 거주민의 죄악상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문학적 강조일 수 있다. Terry Ray Clark, *I Will Be King over You!: The Rhetoric of Divine Kingship in the Book of Ezekiel* (Gorgias Dissertations 59;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4), 125.

부름을 받되, 그가 실제로 접근할 수 없었던 유다인들을 예언대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야웨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도 환상을 통해 본 것으로 기록된다(8-11절).¹²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¹³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웨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패역한 백성, 야웨를 배반한 백성에게 보냈다(2:3). 그러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 예언을 하는 모습은 드물다. 특히 36장 이하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제외하면, 죄악을 저지르는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예언은 찾아보기 힘들다.¹⁴ 물론 모든 예언서에 예언자에게 임한 말씀을 예언자가 빠짐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일종의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포로민들에게 환상이나 상징 행위에 대해 설명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에스겔이 예언의 내용에 명시된 예언대상인 유다나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선언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¹⁵

12 엔젤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유다 포로민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ngel, "Ezekiel: Priest-Prophet", 42.

13 김주환, "포로민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에스겔서의 전략: 8-11장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3 (2018년 9월): 48-49.

14 따라서 오델(Margaret S. Odell)은 예언자(נביא)로서 에스겔의 정체성은 철관으로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는 에스겔의 징조(מא, 오트)가 성취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Odell, "You Are What You Eat: Ezekiel and the Scroll," 233.

15 에스겔서 11장에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범죄현장을 보게 되고, 야웨는 에스겔에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했음을 기록한다. 특히 11장 13절에는 야웨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예언하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고 기록하는데, 에스겔서 8장에 의하면, 바빌론에 거주 중인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야웨가 에스겔을 들어들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3절). 그러나 이 역시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기록함으로써, 에스겔이 실제로 블라다에게 예언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환상 중에 예언을 했고, 그 시각 블라다가 죽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스트라인(C. A. Strine)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한 1-11장의 기록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니느웨의 입을 정절하게 하는 제의인 mispi의 이동과 닮아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C. A. Strine, "Ezekiel's Image Problem: The Mesopotamian Cult Statue Induction Ritual and the Imago Dei Anthropology in the Book of Ezekiel", CBQ 76 (2014), 253-57.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서에서 이상승 배로 일룩진 예루살렘에 관해서 묘사하는 것은 기원전 597년 이후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부재한 성

세 번째 이유는 에스겔서 3장 26-27절의 기록으로, 이 기록은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적인 선언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서 2장에서 야웨가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2:34). 그러나 3장 26-27절에서 야웨가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꾸짖는 자(אִישׁ מוֹכִיחַ, 이쉬 모키야흐)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하게 될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¹⁶

에스겔서 전반에 걸쳐 에스겔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이미 포로가 된 자들이다. 즉 야웨가 에스겔을 보낸 대상인 유다나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스겔서 11장 25절에는 야웨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본 에스겔이 누군가에게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사로잡힌 자’였다.¹⁷ 또한 24장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전의 제의와 타락상을 고발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희형, “에스겔 43장 1-12절을 중심으로 본 에스겔 환상성전의 성격”, 『장신논단』 48 (2016년 봄), 30.

16 에스겔서 20장 49절에 의하면, 에스겔은 당시 청중들이 자신을 가리켜 평가하는 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청중들의 평가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하는 자(מַלְאָכִים מְבַרְבְּרִים, 브마셀 므살립)”라고 기록된다. 오델은 에스겔이 입으로 선포하는 자라기보다는 그의 삶 자체로 상징행위를 통해 예언하는 자로 설명한다. Odell, “You Are What You Eat: Ezekiel and the Scroll,” 248.

17 민유홍은 에스겔서 11장이 예언의 초점이 이동하는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8-11장에

아내가 죽었음에도 슬퍼하지 말라고 한 야웨의 명령, 또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24:15-24), 그 대상은 “백성”으로 명시되어 있다(18-19절).¹⁸ 이 구절에 기록된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그러한 행적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¹⁹ 오히려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거나(8-11장),²⁰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 등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33:21). 따라서 24장 18-19절에 언급되는 “백성” 역시 포로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을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야웨라는 것이다(3:26). 결과적으로 에스겔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야웨의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고 들었음에도 유다인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못한 것은 에스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야웨의 의지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다.

3. 예루살렘 멸망과 열린 입에 관한 묘사

앞서 야웨가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 3장 26-27절의 기록을 언급하며, 에스겔이 야웨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됐지만, 정작 예언대상에게는

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를 고발한 뒤 예언의 초점은 포로민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유홍, “에스겔서의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분석”, 『성경원문연구』 35 (2014년 가을): 142-69.

18 R Andrew Compton, “The Sign-Acts of Ezekiel 3:22-5:17: Formative Rituals of Priestly Identit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9 (2018), 60-62.

19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환상은 야웨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활용된다. Steven Shawn Tuell, *Ezekiel* (NIBC15;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Paternoster, 2009), 58.

20 Clark, *I Will Be King over You!*, 125.

예언을 하지 못한 자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입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며(3:27, 29:21), 실제로 에스겔의 입이 열렸음을 기록하고 있다(33:21-22). 3장 26-27절을 살펴보면, 26절에서는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면서도 27절에서는 조건부로 입이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때는 “내가 너와 말할 때” 즉,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의 상황이다. 에스겔서에서는 야웨와 에스겔 사이의 대화를 자주 기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야웨가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환상 중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자, 에스겔은 야웨를 향해 부르짖게 된다(7:9, 자아크, 9:8, 11:13).²¹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입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예언자로서 에스겔의 활동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야웨와의 개인적인 대화의 순간 이외에 입이 닫힌다는 것은 그의 소명을 무위로 그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닫힌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29:21), 또한 실제로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기록이다(33:21-22). 야웨와의 대화 상황 이외에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는 것은 에스겔이 실질적으로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에스겔이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에스겔서 전반부의 주요 예언 대상인 예루살렘 거주민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된 29장 21절과, 에스겔의 입이

21 이외에도 에스겔이 야웨에게 말하는 장면은 4장 14절, 21장 5절, 37장 3절 등에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서 8-11장은 야웨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그 존재 자체로도, 예언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Nathanael J. Warren, “A Cannibal Feat in Ezekiel”, *JSOT* 38 (2014): 501-12.

열렸음을 기록하는 33장 21-22절은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9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돌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1절은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그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문맥 상, “그 날”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는 날이다(29:17-20). 따라서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될 날은 바벨론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날임을 암시하고 있다.²²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에스겔의 입이 열린 것을 묘사하는 33장 21-22절이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 하였노라

33장 22절에는 야웨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입을 열었고, 다음 날 에스겔의 입이 열려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에스겔의 자전적(自傳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1절에는 에스겔의 입이 열린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22 크라우치는 이집트에 대한 야웨의 심판의 내용이 다분히 신화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9장 3절에 기록된 “큰 악어”라는 표현, 30장 16절에 기록된 “불”과 “찢겨 나누일 것”이라는 표현들이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를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Crouch, “Ezekiel’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n Light of a Royal Ideology of Warfare,” 480-84.

이 시기는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이며,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식을 들은 날이다. 이 말은 에스겔의 입이 열린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며,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잠잠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된 때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라는 것이다. 에스겔서 29장 17-20절에 기록된 이집트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는 날은 실제 성공여부를 떠나 다분히 느부갓네살의 서방원정이 성공할 것을 암시하며, 이는 분명히 유다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되, 멸망으로 직결될 것을 가리킨다. 또한 33장 21-22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식을 듣고 입이 열리게 된 에스겔에 관한 기록 역시 유다의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에스겔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직후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야웨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언급했고(3:26-27), 이는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 예언을 선언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에스겔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점과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에스겔이 예언의 대상에게 직접 예언을 하지 못한 것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의 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예언의 대상들을 꾸짖지 못하게 된 것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에스겔의 입을 닫은 야웨의 의지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야웨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에스겔의 입을 열어 줌으로써, 더 이상 에스겔이 잠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예언자로서의 에스겔의 활동은 멸망하기 전의 유다나 예루살렘을 돌이켜 심판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 후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23 학자들은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거주민이 상징하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민이

4. 에스겔의 입에 대한 묘사의 함의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의 죄악상을 보여준 야웨는 에스겔을 말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그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했다(3:26). 그러나 야웨는 바빌론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면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고(29:21),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입이 열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33:21-22). 또한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기록이 시작되어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물론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의 닫힌 입과 열린 입에 관한 묘사를 토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야웨의 말씀이 심판-회복이라는 구도로 정확히 변경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²⁴ 그 이유는 33장에서 에스겔의 입이 열렸음을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야웨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심판의 기조가 최소한 35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닫힌 입과 열린 입에 대한 묘사가 가지는 함의는 에스겔서의 기록목적에 드러내는 일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 개인의 삶과 예언을 있는 그대로 충실

상징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에스겔서가 포로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hn F.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Divine Presence and Absence in the Book of Ezekiel* (Biblical and Judaic Studies 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98; C. A. Strine, "The Role of Repentance in the Book of Ezekiel: A Second Chance for the Second Generation",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3 (2012), 473-78; Ka Leung Wong, "Profanation/Sanctification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srael in the Book of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8 (2003), 228.

24 Andrew Mein, *Ezekiel and the Ethics of Exile*,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16. 김래용은 에스겔서 33장이 이후에 이어질 구원신탁의 서론으로 역할한다고 설명한다.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탁의 기능", 「구약논단」 67 (2018년 3월), 15-16.

하게 기록한 전기(傳記)가 아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렇듯, 에스겔서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관한 묘사, 에스겔의 예언 등이 수집되고 배열되었다. 따라서 에스겔서가 1차 포로 발생한 후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까지 에스겔이 선언한 예언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자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필요, 신학적 의미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문학적, 신학적 작업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에스겔의 예언과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저자의 손을 거쳐 배열된 책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²⁵

실제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은 야훼와 에스겔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야훼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환상에 관한 에스겔서 1장의 내용에서 누군가 에스겔과 함께 그것을 보았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에스겔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2-3장), 상징행위에 대한 야훼의 설명(5장), 예루살렘과 성전에서의 우상숭배에 관한 환상은 유다의 거주민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이다(8-11장). 따라서 에스겔서의 저자가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 등에 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저자 자신이 에스겔이든지, 에스겔로부터 전수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환상을 보거나 말씀이 임한 즉시 그것을 받아 기록한 현대의 속기사와 같은 기능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저자의 의도에 따른 배열과 편집이 가능한 여타의 예언서와 마찬가지로의 성문화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²⁶

에스겔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에스겔은 바빌론에 의한 멸망을 앞둔 유다

25 예언자의 청중보다는 예언서의 독자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Ehud Ben Zvi, “The Concept of Prophetic Books and Its Historical Setting”, Diana V. Edelman and Ehud Ben Zvi(eds.), *Production of Prophecy: Constructing Prophecy and Prophets in Yehud* (London ; Oakville, Conn.: Equinox, 2009), 75-76.

26 블렌킨숍, 윗글, 290-291.

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야웨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하면서도 (2-35장),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선언한다(36-48장). 그러나 에스겔의 고발과 회복의 선언이 예언의 대상인 당시 청중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에스겔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직후에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3:26), 유다의 멸망과 함께 입이 열렸기 때문이다(33:21-22).²⁷

티마이어(Lena-Sofia Tiemeyer)는 에스겔의 입이 닫힌 것은 유다인들에게 선언된 심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다의 죄악상과 그에 따른 심판으로 야웨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등의 상황의 한 가운데서 입이 닫힘으로 인해서 중재자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야웨의 심판인 국가의 대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에스겔 당시 청중에게 예언이 충실히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보다는 독자들에게 과거 예루살렘과 성전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달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²⁸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은 심판의 대상이자, 동시에 회복의 대상으로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묘사된다.²⁹ 물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회복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린 시기를 의미한다.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는 에스겔의

27 Lena-Sofia Tiemeyer, "God's hidden compassion", *Tyndale Bulletin* 57 (2, 2006), 209.

28 드 브리스(Pieter de Vries)는 예루살렘 거주민의 우상숭배로 인해 야웨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으로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Pieter de Vries, *The Kābôd of Yhw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Book of Ezekiel* (Studia Semitica Neerlandica 65; Leiden ; Boston: Brill, 2016), 359.

29 Strine, "The Role of Repentance in the Book of Ezekiel", 473;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70; Daniel Isaac Block, *By the River Chebar: Histor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Studies in the Book of Ezekiel*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3), 27-29.

입이 닫혔기 때문에 청중에게 예언을 선언하지 못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 물론 에스겔의 입이 닫힌 것은 야웨의 의지로 묘사되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역시 야웨의 의지로 인식된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 에스겔은 다시 열린 입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적극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스위니(Marvin A. Sweeney)의 설명과 같이, 에스겔서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보다는 이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³⁰, 윤형의 설명과 같이 에스겔서가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³¹ 벤 즈비(Ehud Ben Zvi)의 설명과 같이, 에스겔서가 예언자-청중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독자라는 현재와 미래의 사건, 즉 저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것이 되어야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면³²,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최악상에 관한 기록이 반드시 현실적일 이유는 없다. 이는 에스겔서가 묘사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타락이 허구로 기록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미 과거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스겔서는 이미 에스겔의 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포로민과 예루살렘 거주민 사이의 갈등구도 속에서 다분히 포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서 8-1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환상은 단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종교적 타락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민들에게 배타적인 인식을 가진 예루살렘 거주민들에 대해서

30 Marvin A. Sweeney,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321.

31 윤형, “에스겔 43장 1-12절을 중심으로 본 에스겔 환상성전의 성격”, 30.

32 Ben Zvi, “The Concept of Prophetic Books and Its Historical Setting”, 75-76.

기록한다. 8-11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다. 질투의 우상이라 불리는 것(8:5), 담무스 숭배(8:14) 등은 야웨 앞에서 가증한 일로 평가된다(חטובה, 토에바, 8:6, 9, 13). 에스겔서는 우상숭배로 얼룩진 예루살렘 거주민의 모습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들이 포로민들을 향해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에스겔서 11장 15절에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기록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거주민 스스로가 포로민들과 차별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³³ 그러나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말은 야웨의 입을 통해 인용된 것으로서, 야웨는 예루살렘 거주민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주민과 에스겔의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을 분리해 내고 있다.

더욱이 야웨는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니라, 포로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11장 16절에는 “그러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배타적 성향의 사람들³⁴에 대한 야웨 자신의 반응을 담아

33 한동구는 예루살렘 거주민의 주장을 시온신학에 근거한 발언으로 해석하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자들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웨의 성전되심(겔8-11장)”, 『구약논단』 21 (2015년 6월): 9-37.

34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40. 김주환은 11장 15-16절이 야웨를 통해 인용된 말이라는 점을 들어, 예루살렘 거주민과 포로민 사이의 갈등이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 분명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 거주민과 포로민 사이의 갈등을 야웨와 예루살렘 거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주장하며, 야웨가 포로민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김주환, “포로민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에스겔서의 전략: 8-11장을 중심으로”, 45.

낸다.³⁵ 따라서 에스겔서에서 과거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원인을 제시하
되, 예루살렘 거주민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묘사해 내고 있다면, 회복의
예언은 포로민을 향해 있음을 넉넉히 알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³⁶

그러나 에스겔 당시에 포로민과 예루살렘 거주민 사이에 일종의 갈등구
도가 실재했다고 하더라도³⁷, 에스겔서가 포로민의 편에 서 있는 야웨의 모
습을 묘사한 것은 이를 포로민만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는 이미 국가의 멸망을 경험한 후에 기록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³⁸, 국가의 멸망과 함께 에스겔 당시에 존재한 포로민과 예루
살렘 거주민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겔서의 저자와 독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멸망 이전에 존재
했던 갈등 속에서 야웨가 포로민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한 약속을 현재화하되,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에스겔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된 상황,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더라도 국가라는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에 그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포로민과 거주민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에스겔을 통해 선언된 회복
과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살았던 모든 유대인에 대한 것으
로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³⁹

35 블루멘탈(Fred Blumenthal)은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야웨의 영광의 형상에 관한 환상이 야웨의 편제
에 관한 묘사임을 강조한다. 11장 16절에서 야웨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포로민들의 성소가 되어 주
겠다는 약속은 편제하는 야웨의 의지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포로민들의 편에 설 수 있음을 드러낸다.
Fred Blumenthal, "The Prophetic Visions of God's Abode", *Jewish Bible Quarterly* 32 (2004), 162-66.

36 스위니는 포로민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야웨의 선언은 포로민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Sweeney, *Tanak*, 329-30.

37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40;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웨의 성전
되심(렘8-11장)", 14-15.

38 에스겔서 33장 21-22절에서 묘사하는 바, 에스겔서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함락, 즉 국가의 대참사
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9 Ben Zvi, *윳글*, 82-83.

5. 결론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의 입에 관한 묘사는 예언자로서의 에스겔의 역할보다는 예언서로서 에스겔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문학적 장치다.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예언의 대상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에게 자신에게 임한 야웨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들이 야웨께로 돌아와 예고된 파멸을 피하게 하는 일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야웨의 의지로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3:26-27).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비판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지만, 에스겔이 자신에게 주어진 야웨의 말씀을 예언의 대상인 유다인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다시 입이 열렸다(33:21-22). 따라서 에스겔은 자신의 청중보다는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기록된다(36-48장).

닫혔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린 시점이 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으며, 유다의 멸망까지 에스겔이 유다인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멸망 후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다는 점은 에스겔서가 에스겔의 현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에스겔 자신이 예언한 미래의 회복에 관한 일은 에스겔서를 읽을 독자에게는 현재 혹은 조금 더 가까운 미래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에스겔의 입이 닫힌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다시 그 입이 열린 것이 야웨의 의지였다면, 에스겔을 통해 선언된 회복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 역시 야웨의 의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살았던 유다인들은 에스겔 당시에는 포로민들 중심에 두었던 회복의 메시지를 모든 유다인들을 향한 것으로 확대 수용하여 자신들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회

복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로 활용했을 것이다.⁴⁰

6. 참고문헌

-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약의 기능”, 「구약논단」 67 (2018년 3월), 10-45.
- _____,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 「구약논단」 69 (2018년 9월), 232-65.
- 김주환, “포로민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에스겔서의 전략: 8-11장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3 (2018년 9월), 35-58.
- 민유홍, “에스겔서의 드라마화된 예언 담화에 관한 분석”, 「성경원문연구」 35 (2014년 가을), 142-69.
-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상」 (김경렬 옮김), (WBC 28; 서울: 솔로몬, 2009). 원저 Allen, eslie C., *Ezekiel 1-19* (WBC 28; Waco, Tex. : Word Books, 1994).
- 윤 형, “에스겔 43장 1-12절을 중심으로 본 에스겔 환상성전의 성격”, 「장신논단」 48 (2016년 봄), 13-36.
- 조셉 블렌킨썩, 「이스라엘 예언사」 (황승일 옮김), (서울: 은성, 1992). 원저 Blenkinsopp, oseph,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 클라우스 코흐, 「예언자들2: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원저 Koch, Klaus, *The Prophe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되심(겔8-11장)”, 「구약논단」 21 (2015년 6월), 9-37.
- Angel, Hayyim, “Ezekiel: Priest—Prophet”, *Jewish Bible Quarterly* 39 (2011), 35-45.
- Ben Zvi, Ehud., “The Concept of Prophetic Books and Its Historical Setting”, Diana

40 Launderville Dale, “Ezekiel’s Throne-Chariot Vision: Spiritualizing the Model of Divine Royal Ru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6 (2004), 361-77.

- V. Edelman and Ehud Ben Zvi(eds.), *Production of Prophecy: Constructing Prophecy and Prophets in Yehud*, (London : Oakville, Conn.: Equinox, 2009), 73-95
- Block, Daniel Isaac, *By the River Chebar: Histor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Studies in the Book of Ezekiel*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3).
- Blumenthal, Fred, “The Prophetic Visions of God’s Abode”, *Jewish Bible Quarterly* 32 (2004), 162-66.
- Clark, Terry Ray, *I Will Be King over You!: The Rhetoric of Divine Kingship in the Book of Ezekiel*, (Gorgias Dissertations 59;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4).
- Compton, R Andrew, “The Sign-Acts of Ezekiel 3:22-5:17: Formative Rituals of Priestly Identit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9 (2018), 47-80.
- Crouch, Carly L., “Ezekiel’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n Light of a Royal Ideology of Warfar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0 (2011), 473-92.
- Dale, Launderville, “Ezekiel’s Throne-Chariot Vision: Spiritualizing the Model of Divine Royal Ru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6 (2004), 361-77.
- Joyce, Paul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41; Sheffield: JSOT Press, 1989).
- K. L. 눌,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소형근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9). 원제 Knoll, K. 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Kutsko, John F., *Between Heaven and Earth: Divine Presence and Absence in the Book of Ezekiel* (Biblical and Judaic Studies 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 Mein, Andrew, *Ezekiel and the Ethics of Exile*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Odell, Margaret S., “You Are What You Eat: Ezekiel and the Scrol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 (1998), 229-48.
- Pieter, de Vries, *The Kābôd of Yhw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Book of Ezekiel* (Studia Semitica Neerlandica 65; Leiden : Boston: Brill, 2016).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Supplements to Vetus Testa-

mentum 76; Leiden ; Boston, Mass.: Brill, 1999).

Strine, C A., “Ezekiel’s Image Problem: The Mesopotamian Cult Statue Induction Ritual and the Imago Dei Anthropology in the Book of Ezekiel”, *CBQ* 76 (2014), 252-72.

Strine, C. A., “The Role of Repentance in the Book of Ezekiel: A Second Chance for the Second Generation” ,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3 (2012), 467-91.

Sweeney, Marvin A.,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Tiemeyer, Lena-Sofia, “God’s hidden compassion”, *Tyndale Bulletin* 57 (2006), 191-213.

Tuell, Steven Shawn, *Ezekiel*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15;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 Paternoster, 2009).

Warren, Nathanael J., “A Cannibal Feat in Ezekiel”, *JSOT* 38 (2014), 501-12.

Wong, Ka Leung., “Profanation/Sanctification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srael in the Book of Ezekiel” , *JSOT* 28 (2003), 210-39.

검색어

에스겔

닫힌 입

열린 입

포르민

예루살렘

성전

외국어 요약문

Implications of the Description on Ezekiel's Closed or Opened Mouth

Ju-Hwan Kim

Yonsei University

Although Ezekiel was called to be a prophet, his mouth was closed. Accordingly, even though he saw the sins of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in visions of God, he could not prophesy against or rebuke them. Yet Ezekiel's mouth was opened after the fall of Jerusalem, and Ezekiel prophesied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temple. The book of Ezekiel shows that it was Yahweh's will that Ezekiel's mouth be closed and opened. It was also Yahweh's will that Ezekiel was not able to take any action until the fall of Jerusalem. The book of Ezekiel reveals that the fall of Jerusalem in the past was Yahweh's

www.kci.go.kr

judgment on the Jews who had betrayed Yahweh. In contrast, Ezekiel, with his mouth opened, presented a blueprint for Israel and the temple, which would be restored in the future. In the end, the hope of restoration was promised to the captives. When reading the image of Ezekiel, who was silent before Judah's destruction and declared restoration after the destruction, the situation of the writer of the book of Ezekiel and its readers should be considered more than the situation of Ezekiel and the audiences of his prophecy. In the time of the readers of the book of Ezekiel, Judah had already fallen, and many Jews were taken captive. In the days of the prophet Ezekiel, the captives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existed separately, and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readers lived in a time when the border between the two groups was broken and all Jews wished for restoration. Thus, the times of the readers of the book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times of the audience described in the book of Ezekiel. Therefore, the book of Ezekiel emphasizes that the destruction of Judah was due to the sin of Jerusalem, and at the same time, it wa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restoration declared by Ezekiel as intended for all Jews. Hence, Ezekiel's closed mouth and opened mouth as described in the book of Ezekiel depict both the destruction of Judah which was the past, and the present or future event of the true restoration of Israel, thereby imprinting the hope for restoration onto the readers who lived in the exilic and post-exilic periods.

Keywords

Ezekiel

Exile

Jerusalem

Temple

Closed Mouth

Opened Mouth

- 투고일: 2021년 1월 15일
- 심사일: 2021년 2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18일

www.kci.go.kr